

도비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5년 후

개관하기까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재활을 돕고자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대한 계획을 양천구에서 수립하여 설계까지 마쳤지만 복지관이 들어섬에 따라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의 반대와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2002년 민선 3기 추재엽 양천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지금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반대의견을 가진 지역주민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장애인복지관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며, 양천구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설득하여 2002년 12월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그러나 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직접 찾아가 양천구의 현실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켜 6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복지관 건립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혹시하는 생각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전국의 주요 장애인복지관장, 복지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설계도 검토, 공청회 등을 3회에 걸쳐 진행한 결과 지금 복지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수중운동실의 수심이 60cm로 너무 낮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60cm의 수심으로는 성인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시 예산 중 각 구에 지원할 예산을 살살이 파악하여 S구에 미 집행된 복지관 신축 예산을 찾아내고 다시 서울시장님에게 예산지원을 건의, 시장님께서 이를 수락하시고 지원해 주시어 총 1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5,480㎡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양천구 민선 4기의 추재엽 구청장님은 이처럼 양천구 장애인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지금도 열정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계신다.

2TOP SYSTEM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으로 발전했습니다.

2004년 양천구의 등록장애인은 1만2천여 명이었으며, 2009년 8월 현재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등 등록장애인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 추진 목표를 정하고 1단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장애인복지욕구조사, 업무추진지침 매뉴얼 등 제작,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 운영, 이용자 소리 청취 창구 신설 등 추진기반을 다져나갔다.

2단계인 도약발전기(2008년 ~ 2010년)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체계를 2TOP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입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복지관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관 내방 프로그램에는 강사풀 제도를 도입하여 질적향상은 물론 대기자 감소에 주력하였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생활편의시설 지원, 활동보조사업, 세탁지원, 맞춤형 문화공연, 가사지원, 컴퓨터교육, 운동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9년 8월말 현재 실인원 4,59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당시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3,497명에게 100% 복지서비스를 충족함은 물론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처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방 및 방문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2TOP 시스템을 2010년까지 완성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욕구에 부응한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이상 복지관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는 대기자 ZERO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화성숙기인 3단계(2011년 ~)에는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선도적 시책을 연구·개발과 양천구의 사회적 기업을 확대 육성하여 장애로 인한 취업의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양천구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도 2005년 68개, 2006년 88개, 2007년 97개, 2008년 174개, 2009년 192개 등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9년 8월 현재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은 135,087명으로 2005년 51,740명 대비 161%가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 5년을 맞이하며



장애인 권익향상, 자립생활지원, 복지공동체 조성 등 으뜸양천과 함께하는 으뜸복지 구현이라는 커다란 꿈을 품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연지 어느덧 다섯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난 5년의 세월동안 양천구에 거주하는 1만7천여 장애인 모두에게 고른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땀흘려 노력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양천장애인복지 5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동안 복지패러다임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많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활치료서비스와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서비스체계의 2TOP 시스템을 도입, 복지관 내방과 찾아가는 서비스의 입체적 추진으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적시에 혜택을 드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활치료서비스, 활동보조사업, 지역복지공동체 협약, 강사풀제 도입, 장애인식개선사업, 장애아 통합보육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지원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여 개관 당시보다 프로그램은 182%, 이용인원은 215%로 성장하여 명실공히 지역 장애인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관으로 우뚝서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으뜸양천, 으뜸복지의 실천기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복지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양천구청, 각 단체·기관의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양천장애인복지 5년사>는 각 사업별 주요추진 내용과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후기,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 5년사>가 장애인복지의 참고자료가 양천구 장애인복지발전에 유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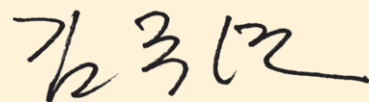
또한 양천구에 최고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관을 만들어주신 추재엽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프로그램 이용자, 자원봉사자, 부모회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 주 년







CONTENTS

제 1 편	복지관 개요	9
	제1절 복지관 운영	11
	제2절 일반현황	15
	제3절 기구·인력	18
	제4절 등록장애인 현황	20
제 2 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책의 변화	21
	제1절 서 론	23
	제2절 양천장애인복지의 발전	24
	제3절 복지환경 변화에 부응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시행	31
	제4절 장애인복지사업이용인원 변화	34
제 3 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5년의 결실	45
	제1절 장애인복지 브랜드 “20”	47
	제2절 사진으로 보는 장애인복지	67
	제3절 언론으로 보는 장애인복지	94
제 4 편	장애인복지 분야별 추진 현황	139
	제1절 가족복지분야	141
	제2절 통합교육분야	158
	제3절 운동기능분야	168
	제4절 직업지원분야	187
	제5절 지역복지분야	199
	제6절 재가복지분야	210
제 5 편	부 록	22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 행복해요	223
	양천장애인복지 발전의 주역들	261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띠 & 다숨이	271

